LG그룹, LG-GS홀딩스 2개로 분할

신설 지주회사 설립 계열분리 전초 … LG정유는 GS홀딩스에 속해

LG는 4월13일 이사회를 열고 업종 전문화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상호 사업연관성이 적은 제조업 부문과 유통 중심의 서비스 부문을 분리하기 위한 회사분할안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LG의 회사분할 결의는 2004년 안에 진행될 LG그룹의 구·허씨 계열분리를 위한 전초단계로 풀이된다.

LG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5월28일 분할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7월1일자로 LG와 GS홀딩스 2개의 지주회사로 정식 분할되며 GS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 선임된다.

이에 따라 LG에는 LG전자와 LG화학을 비롯한 제조 계열기업 29사만 남게 되며, 신설 지주회사인 GS홀딩스는 LG유통, LG홈쇼핑, LG-Caltex정유 등 8사에 대한 출자를 담당하게 된다.

LG 측은 "회사분할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연관성이 적은 사업군의 분리를 통한 전문화·전업화로 경영 효율성 향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LG-Caltex정유는 고객접점인 전국 2900여개의 주유소와 200여개의 <조이마트> 및 460여개의 <오토오아시스>, 보너스카드 고객 DB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유통 관련사업 확장이 미래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부문과 함께 분리된다고 LG 측은 설명했다.

분할방식은 분할기일인 7월1일 현재 존속회사인 LG의 주주에게 분할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인 GS홀딩스의 주식을 배정하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비율은 LG 65%, GS홀딩스 3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LG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는 회사분할 후 LG 65주, GS홀딩스 35주를 각각 교부받게 된다.

GS홀딩스의 자산, 부채, 자본규모는 분할대상 기업인 LG유통, LG홈쇼핑, LG-Caltex정유의 자산 및 부채, GS홀딩스의 재상장 요건 및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결정했다고 LG 측은 밝혔다.

회사분할 결의에 따라 존속회사 LG는 발행주식 총수 1억7587만1808주, 자본금 8794억원, 자산 3조9949억원, 자기자본 2조7534억원, 부채비율 45%가 된다.

또 신설회사 GS홀딩스는 발행주식 총수 9470만204주, 자본금 4735억원, 자산 2조1801억원, 자기자본 1조5264억원, 부채비율 43%가 된다.

한편, LG는 자회사인 LG스포츠에서 프로축구단 <FC서울>을 분할해 관련 출자부문을 신설법인인 GS홀딩스로 귀속시키는 한편, LG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LG강남타워도 회사분할과 함께 GS홀딩스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LG 정상국 부사장은 "궁극적으로 분할된 지주회사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주주간 경영권 분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회사분할은 지주회사체제의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전문화·투명화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4/14>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